

13번째 간디가이드

최 우 윤*

열흘째 사무실.

“라라, 웬디가 주문한 야광팔찌 좀 같이 받아와. 꽤 무거울거야.”

“사은품 봉투 만드는 중인데, 요거만 마무리하고 다녀오면 안될까요?”

벌써 열흘째다.

열흘을 꼬박 햄버거와 콜라로 연명하면서, 사무실에 놓아둔 침낭에서 잠이 들고 아침을 맞는 생활의 연속인 것이다. 본격적인 행사 준비가 시작되고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커다란 가방 하나 메고 씩씩하게 떠나왔던 간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워지지만, 여긴 목메어 불러도 위로해 줄 간디인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긴 여름방학이 아니던가. 라라는 이내 고개를 젓는다.

“다녀오겠습니다!”

Gandhian Dream

사실 작년인 1학년 때만 해도 ‘진로’라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다. 간디에는 17살이라는 나이에 자신만의 확고한 꿈을 안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 3년이라는 시간은 이들에게 얼마든지 다른 꿈을 가지게 할 수도, 자신의 꿈을 더욱 멋있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 시간이다. 라라는 특별한 포부 없이 간디에 입학하여,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특별한 애착 없이 무사히 1학년을 마친 케이스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행사를 기획하는 일로, 직업체험의 일환으로 라라 본인이 선택한 발로다. 말이 기획이지, 실상 라라가 하는 일은 죄다 허드렛일 뿐이었다. ‘행사기획’이라는 멋있는 말로 포장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은 상경한 첫 날 산산히 부서졌다. 마땅히 서울에는 거처도 없던 터라, 아쉬운 대로 사무실 한켠에 침낭을 두고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숲속마을 작은학교’를 표방하는 간디에서 생활하면서 또래에 능가하는 독립성을 키워왔다는 것만큼은 자부해왔는데, 여러 가지로 기가 죽는 요즘이다.

일단 행사기획이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은 대학

* 간디대학원 기초과정 8기. Actually, my indian full name is 밀도끌도없이당당 in Gandhi.

생이나 직장인이 대부분이었고, 더러는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행사기획 자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로 이런 유의 공연이라는 것이 거진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니 기업체의 스폰을 받는 일이 매우 절실한 일이 되었고, 매회 고정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는 하지만 막상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달라지는 구조이다보니 번듯한 법인의 틀을 갖추고 있지도 못했다. 회의를 열 사무실이며, 행사를 열 장소의 섭외, 당일날 함께할 자원봉사단 모집까지 일일이 몇 안 되는 기획단이 챙겨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행사를 홍보할 포스터도 나누어 붙이고 다녀야 할 처지다. 아마도 라라의 몫이 클 것이다.

라라가 처음부터 행사기획이라는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멋지게 칵테일쇼를 하는 바텐더가 되고 싶었다. 은근한 조명 아래 화려한 손놀림, 알싸한 알코올의 몽환적인 느낌. TV를 통해 보이는 칵테일쇼에는 언제나 불쇼도 함께였다. 그 공간과 그 시간에서만만큼 바텐더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무의식의 세계.

그렇지만 라라는, 바텐더라는 직업의 애환을 그린 다크를 보고 단호하게 첫 번째 꿈을 접어버렸다. 남들이 잘 때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 자야한다는 당연한 사실 이외에도 바텐더라는 직업은 너무나 힘든 직업이었다. 게다가 조주기능사인가, 사법시험은 아니지만 그런 시험도 봐야했다. 라라는 칵테일쇼를 하던 TV속 바텐더를 보고 꿈을 키우고, 마찬가지로 다크로 그려진 TV속 바텐더를 보고는 그 꿈을 버렸다. 이제는 한때나마 그런 꿈을 가졌다는 사실조차 잊혀져가는 중이다.

그런가하면 한동안은 연극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달뜨기도 했다. TV속 연예인들이 무명시절 연극배우를 거쳤다는 한결같은 인터뷰를 보고나서 더욱 그런 환상에 젖게 된 것도 같다. 그래서인지 한동안은 허리를 곧추 세우고 간디를 확보하고 다녔다. 라라는 실제로 연극을 보지는 못했다.

사실 그 어느 것도 ‘미칠 만큼’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은 없었다. 언제나 ○○이 된다면 어떨까, 정도였다. Que sera, sera!

라라는 자신이 18살이 되도록 아직도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종종 간디에 남아계실 선생님들을 원망하고는 했다. 선생님들은 그가 어떤 꿈을 얘기해도 언제나 OK였다.

‘라라가 하고 싶다면 열심히 해보렴.’

이번 2학년 여름방학에는 행사기획을 체험해보고 싶다고 서울 상경을 조심스럽게 요청했을 때에도 이런 맥빠진 반응 뿐이었다. 그리고 보면, 자신을 포함해 다른 친구들조차도 자신의 꿈을 저지당한 경우는 본 적이 없었다. 바텐더가 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단호하던 부모님의 반응을 떠올려보면, 라라로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 그때 부모님은 라라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널 간디로 보낸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게 하는 말이구나.”

라시며, 슬픈 표정을 지으셨었다.

라라는 어떠한 결정에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셨던 간디 선생님들의 뜻이 ‘너라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힘을 실어주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아무래도 좋다’ 는 지극히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인 건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D-3 간디와의 교신은 두절 중

“네, 벌써 찍으셨다구요? 어휴.. 물량이 다 나왔습니까?”

본 행사를 3일 앞둔 사무실의 아침풍경은 그다지 평화롭지 못했다. 대학시절부터 화려한 행사 경력을 자랑하는 파이거 기획단장이 미간 사이로 내 천자를 그리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다. 기획단 일동이 모두 숨죽인 채 각자의 노트를 노려보고 있었다.

“휴.. 그렇다면 저희 쪽 착오가 확실하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통화가 끝났다.

불뚱은 누구에게 튈 것인가.

“라,라!”

나다.

불행하게도.

“... 네.. ?”

영문을 모른다는 말투에는 몹시 불안한 음성이 담겨 있었다. 갑자기 숨 쉬는 리듬마저 엉킨 느낌이다. 안도와 호기심을 반씩 담은 시선들이 나와 기획단장에게로 번갈아 쏘였다.

“행사 당일날 뿌릴 티셔츠, 프린트 확인했어?”

“... 네..?”

바보같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있다.

“우리 행사명 제대로 찍혀 나오는지 묻고 있잖아!”

순간, 정수리의 머리카락 한 올이 빠죽 서는 느낌과 동시에 온몸이 서늘해져왔다. 얼음. 나와는 정반대로 온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간 기획단장이 섬뜩한 눈빛으로 얼음 상태의 나를 무장해제 시킨다. 얼음뎡. 그제서야 굳어있던 내 입술이 조금씩 꼬물거리기 시작한다.

“...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깜박한 것 같아요..”

“뭐? 깜박해? 행사가 장난이야? 너는 체험하러 왔으니 행사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뭐야?”

기어이 험한 말이 나오고야 말았다.

우리가 행사를하기로 섭외한 인사동 쌈지길의 하루 유동인구는 6천 여 명. 주말에는 1만 여 명에 육박한다. 행사 당일날 참여예상인원은 1천 여 명. 우리는 약 1,200개의 티셔츠와 액정다이 기능이 있는 핸드폰고리, 그리고 야간에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야광팔찌를 준비하기로 했었다. 이 중 핸드폰고리의 이미지는 H대 미대에 다니는 호라가 담당했고, 브로슈어는 편집디자인에 일가견이 있는 과니가 맡기로 했다. 밝은 청색 바탕의 티셔츠는 심플하게 우리 행사명만 프린트해 넣기로 했는데, 라라가 오더를 넣으면서 그만 프린트 얘기를 깜박한 것이다. 그게 없으면, 티셔츠는 제작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 파이거가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것이다.

“어이구... 단장, 너무 화내지 말어. 처음 해보는 거니,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어떻게든 수가 있겠지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 이성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수업 때문에 오후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호라를 제외한 기획단 일동이 파이거를 말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때쯤인가. 라라 눈가가 축축해지기 시작했다. D-3을 남겨둔 사무실의 아침회의는 그걸로 끝이었다.

티셔츠 건을 해결하기 위해 파이거와 과니가 인쇄사로 달려가고, 남은 인원들은 포스터 잔여 물량을 해치우기로 했다. 1인당 백오십장씩 나눠들고 서울 시내 어딘가로 흩어져버렸다. 서울이 처음인 라라는 사무실과 가까운 지역을 맡았다.

아침회의 때의 여과 때문인지, 라라는 내내 코와 인중 사이에 울음을 머금은 듯한 느낌이었다. 늘 활기찼던 포스터 배포 일도 오늘은 영 손에 잡히지 않았다. 허름한 주택가 앞 진봇대 앞에 영성하게 쭈그리고 앉았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바쁠 줄 알았더니, 너무 농땡이 치는 거 아니야?”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손톱만큼의 기대도 없이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신기루가 있었다.

시저

믿을 수 없게도 작렬하는 한여름의 태양을 등지고 라라를 내려다보는 이는 시저였다. 라라는 거의 실신할 뻔 했다. 시저는 간디에서 작업장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라라에게는 지난 1년 반 동안 멘토로 느껴질 만큼 의지하던 선생님이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는,

라라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농사짓는 이의 구릿빛 피부가 뜨거운 서울 하늘 아래서 묘하게 어울렸다. 와락 뛰어들어 안겼다.

“재미있니?”

무미건조한 이런 질문에 울음을 터뜨릴 줄은 라라 자신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서럽게 우는 라라를 시저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여기, 라면 두 그릇 주세요!”

뜨겁고 얼큰한 라면은 한여름에 땀을 빼내기에 충분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라면그릇을 비워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이 주르륵, 하고 턱에 가 맺혔다. 이내 푹푹 떨어졌다. 시원한 선풍기 바람을 쐬자니 오늘 하루 눈물애, 콧물애, 땀방울까지 온몸이 나른해진 기분이었다.

배가 그득해지자 한결 여유가 생겼다. 시원한 공기를 쓰읍, 하고 들이마셔 본다. 기분 좋다.

가게를 나서고 두 사람은 또 말없이 걸었다. 시끄러운 대로외 가로수길을 지나 골목으로 들어서고 다시 골목, 골목을. 작은 놀이터 앞에 멈춰섰다.

“저기 나무그늘 밑에 벤치로 가자.”

서늘한 벤치에 엉덩이를 붙인 다음에야, 비로소 라라는 그간의 고충을 미주알고주알 털어놓기 시작했다. 요만큼의 고민도 털어놓던 시저였기에, 숨길 것이 없었다. 처음 서울로 상경하던 날, 무섭게 혼난 오늘 아침, 아무도 만류하지 않던 간디의 선생님들, 대체 이게 자신과 맞는 건지 알 수 없다는 푸념까지.. 시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꿈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 것 같니?”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시저는 물었다. 꿈. 순간 많은 생각들이 라라의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다. 질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라라에게 있어 가장 절실한 일은 ‘꿈’을 찾는 일이었다. 자신의 꿈을 찾아야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 아닌가.

시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먼저 찾아야 하는 건, 라라의 ‘꿈’ 이 아니라 ‘라라’ 가 되어야 해. 그래야 ‘라라의 꿈’ 이 되는 거야. 지금 라라가 찾는 ‘꿈’ 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가졌거나 가졌던 것들이지. 라라는 좌판에 벌여놓은 물건 중 하나를 고르는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물건이 라라에게 필요한 건지, 어울리는지는 잊어버린 채 말이야. 그런 ‘꿈’ 은 라라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할 거야.”

골똘히 생각에 잠긴 라라를 뒤로 한 채 시저는 조용히 돌아섰다.

고군분투 중인 라라에게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남긴 채.

“라라에게 이번 여름방학이 ‘라라’ 를 찾는 여행이 되었으면 해.”

호랑이 굴속으로

시저와 헤어진 후 라라는 서둘러 남은 포스터를 해결하였다. 말이 백오십장이지, 한 사람이 이 정도를 붙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니 오후 4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주저하다가, 과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티셔츠 프린트 건은 해결됐나요?”

“음... 그게 스폰에도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아직 해결을 못했어.”

우리 행사를 고정적으로 스폰 해주던 대기업L에서 예기치 못한 연락을 받은 것이었다. 이번에는 스폰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던가, 아니면 스폰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요지였다. 약 10여년 가까운 시간을 통해 꽤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행사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생리상 상업적인 메리트는 거두기 힘든 행사다. 또, 고정적으로 스폰을 해오던 곳이었기에, 달리 확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다른 일들에만 매달린 것도 행사를 3일 남겨두고 통보를 받은 원인이기도 했다. L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나, 우리로서는 행사를 포기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선 문제였다. 티셔츠 건이 아직 미결인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라라는 과니에게 얘기를 하고, 곧바로 인쇄사로 뛰어갔다. 거래하는 인쇄사는 지하철로 세 정거장 거리에 있었다. 장당 1,900원 정도로 맞춰서 천 장을 의뢰한 상태였다. 가보니, 왼쪽 가슴에 자그맣게 프린트 하려 했었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전면에 대문짝만하게 ‘젊은 날’ 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이 세 글자로는 우리 행사를 제대로 알리기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너무 촌스러워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려할 것이 분명했다.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팔짱을 끼고 잔뜩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입장도 충분히 수궁이 갔다.

그렇지만, 천 장이라면 부가세를 제하고도 200만원에 가까운 액수였다. 도로 진량 다시 찍기에는 출혈이 너무 컸다. 문득, 라라에게 반짝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막 오르다

정식 행사시작은 5시 반이었지만, 사전행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밝은 청색 티를 입은 기획단과 자원봉사단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사전행사는 작은 갤러리 형태로 행사장 입구 양옆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지나던 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에 느껴졌다.

‘기쁜 우리 젊은 날’ 이라는 로고가 왼쪽 가슴에 선명이 찍힌 STAFF 들이 분주히 행사장을 누비고 다녔다. 예년보다 훨씬 성대하게 느껴지는 행사였다. 언론도 대거 관심을 쏟았다. 공중파 방송국을 비롯해서 유력한 일간지의 문화부 기자들도 눈에 띄었다. 개 중에는 지역의 청소년축제를 기획하는 지자체 관계자도 있었다. 이번 언론홍보 파트는 태조와 함께 라라가 맡았다. 아

무 것도 모르고 맡은 것 치고는 대단한 성과였다.

본 행사가 임박하면서, 행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조명이 비취지자, 벌써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도 있었다. 곧 이어 무대가 이어질 것이다. 재치 있는 사회자의 입담과 내노라하는 청소년들의 화려한 무대. 째뽀이 보여질 동영상에는 보아, 김연아, 귀여니 등 각 분야에서 청소년기를 멋지게 보낸 유명인들의 인사가 이어질 것이다. 2부 행사에는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고심 끝에 만들어 낸 프로그램들이 빛을 발할 예정이다.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행사장 속에서 문득 라라는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꼬박 한 달이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한 달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에는 지난 3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라는 인쇄사 사장님에게 매혹적인 제안을 내놓았었다. 티셔츠를 다시 프린트하는 대신, 티셔츠 후면에다 인쇄사 로고와 상호를 넣자는 제안이었다. 대신 브로슈어를 제외한 핸드폰고리 제작 일체를 이곳에 맡기기로 약속했다. 마침 핸드폰고리의 디자인 작업이 늦어져서 미처 넘기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기왕에는 야광팔찌, 사은품 봉투 인쇄와 같이 다른 거래처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파이거와 상의 끝에 이쪽으로 가져와버렸다. 인쇄사 상호를 넣는 것만으로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브로슈어는 아무래도 편집경력이 있는 인쇄사로 넘겨야겠기에 제외해두었다. 핸드폰고리만도 천 개. 게다가 일반 티셔츠 제작보다 단가가 세다. 일회성 건수로서는 괜찮은 제안이다. 사장은 흔쾌히 O.K 한다.

티셔츠 사태를 간신히 수습하고 돌아온 오후 회의에서, 라라는 다른 일거리를 하나 더 맡게 되었다. 원래 태조가 진행하던 언론홍보 파트를 라라가 이어서 해보라는 제안이었다. 태조는 D 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으로 팀에 합류한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언론홍보를 담당해 오고 있었다. 하필이면 행사를 코앞에 두고 집안 일로 고향인 전남 광주에 잠시 내려가야 하는 바람에 이어서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태조가 워낙 꼼꼼히 일을 해 온 덕에 지금껏 큰 문제는 없었지만, 행사 당일날에는 최대한 많은 기자들이 오도록 2~3일 전에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다. 기자 개인연락처로 일일이 전화를 건다. 태조가 만들어 놓은 최종 보도자료도 라라가 손을 봐 두었다. 당일날 PRESS 명찰을 단 사람들에게 지급할 것들이었다. 아무리 당일날 아침에 확답을 받아두어도, 더 좋은 취재거리가 터지면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 기자들의 생리라지만.

행사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었다.

B사가 스폰한 외부사은품으로 콘돔도 이제 거의 소진되었다.

7월의 밤 치고는 꽤나 화려한 밤이었다.

re, 시저

“자, 다들 고생이 많았다. 행사 마무리가 되면, 우리끼리 거하게 뒤풀이 가자.”

한껏 들뜬 파이거의 목소리가 기분 좋은 밤하늘을 갈랐다. 기획단 사람들 모두 상기된 표정이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짜릿함이 이들을 관통하고 있었다.

“행사, 정말 멋있었어.”

문득 들려오는 낮익은 목소리에 흠칫 라라는 고개를 돌렸다. 시저였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에 불청객이었던가?”

멋쩍게 웃으며 시저는 싱큼 라라에게로 다가섰다. 라라는 그제서야 행사가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선생님, 오셨어요! 말씀하시지... 이따가 맛있는 밥 사주세요!”

“아니야, 오늘 밤은 이 큰 행사를 성대히 마친 전우들끼리 보내야지. 간디에는 언제쯤 돌아갈 생각인가?”

“내일 아침에는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이런... 그러지 말고, 사무실에 며칠 더 묵을 수 있다면 서울을 좀 둘러보고 돌아가는 것은 어떨까?”

“서울을요?”

“일만 하고 돌아가긴 아깝잖아. 그리고 왜,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던가. 라라를 찾는 여행. 그것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겸.”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시저가 씩— 웃었던가. 서두를 이유는 없었다. 사무실은 아직 비우기까지 날짜가 좀 남아있어, 지내던 대로 침낭생활을 하면 되고.. 서울 지리야, 어떻게든 될 터였다. 전쟁 같은 한 달을 무사히 마친 라라 자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간디로 돌아간 첫 날, 시저와 재회하기로 약속이 되었다.

라라의 꿈

돌아온 간디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서울 한복판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느라 부쩍 건강해 보이는 라라와는 달리. 그리고 무언가를 가득 담은 듯한 라라의 눈빛도.

얼음을 동동 띄운 수정과 잔을 마주한 시저와의 재회다.

활짝 열어제낀 창 밖에는 한여름의 푸르른 녹음이 들어왔다. 있는 힘껏 울어대는 매미소리도 웅얼었다. 시저는 말이 없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라라가 말문을 열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조용한 아이였어요.

공부는 잘한 편이었는데, 내성적이고 남자 아이들보다는 여자 아이들 몇 몇과만 어울렸죠.

솔직히 그 때도 뭔가, 느낄만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자라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가서는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과목 수도 많아지고, 여자들만 있는 학교에 가니까 경쟁도 좀 있고 그랬죠.
 저희 학교는 소위 그다지 좋은 ‘학군’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곧잘 우리를 무시하곤 했어요.
 저희 때까지는 연합고사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 내신등급 차이가 많이
 난다며 쓴웃음을 지으시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학급문고로 배치된 ‘명작’이나, ‘전기’ 등을 읽으며 가끔 질문을 던지면, 담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시험을 잘 보는 일이 시급
 한 일이야.” 선생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요. 연합고사 성적이 안 좋아서 저 멀리 원치 않는 고등학교로
 간 친구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저희 때까지는 ‘비인문계’라는 종류의 고등학교도 있었거든요.
 언젠가 진로상담부장으로 계시던 영어 선생님께 찾아가 ‘문화평론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뭐라
 고? 뭐가 되고 싶다고?” 선생님은 자꾸 ‘문학평론가’라고 들으셨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문,화,평,론,가,라고. 중년의 선생님은 제게 기도 안 찬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건 될 수 없
 어. 서울대나 가야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선생님은 연세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문화평론가라는 이
 름은 그렇게 제게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서서히 제 인생은 연합고사라는 일회성 사건에 포커스가 모아지게 되었어요. 3학
 년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질문은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게 되지요. 저는 연합고사로 귀결되는 제 1
 년간의 인생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어요. 항복. 나는 그 전쟁에 끼지 않을래요.

이런 얘기들을 엄마와 나눴던 것 같아요. 한동안 밤마다 엄마와 아빠가 두런두런 무언가를 상의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충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저에게 간디학교 입학원서를 내
 미셨지요. 그렇게 간디에 오게 된 거예요.

자유는 참 소중한요.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그 자유를 충분히, 아니 넘칠 만큼 썼던 것 같아요.
 멀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다는 자유도 덩으로 주어지잖아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루한 수업도 마음껏 제낄 수 있었어요.
 중학교 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간디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교칙마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대하기도 했어요.
 너무 놓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제어하게 할 만큼 저는 자유로웠어요.

꿈과 목표를 가지고 간디에 온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언뜻 보면, 그 친구들은 큰 고민 없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거잖아요.
 난 되고 싶은 것이 없었어요.
 그저, 상잔의 전쟁터에 가담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어요.
 쿠다는 기가 막히게 기타를 잘 쳐요.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래요.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낮과 밤에 쿠다의 감미로운 기타소리가 귀를 간지럽혀요.
 시노은 시사적인 문제에 늘 날카로워요.
 제 성격대로 사회단체에서 일을 하는 게 꿈이라네요.
 슈위는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썼대요.

곧 죽어도 작가가 되겠다는 게 이 놈 생각이예요.
 반면 저는,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 본 일이 없어요.
 머릿속으로 ○○는 어떨까, △△는 어떨까 재보고 끄적거리려 보고 지레 포기한 게 다예요.

처음에는 간디의 선생님들을 원망했어요.
 이렇게 간디를 졸업하다간, 아무 것도 머릿속에 든 것 없이 꿈도 못 찾게 생겼잖아요.
 선생님들은 언제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가길 원하셨어요.
 무엇을 들고 찾아가도 잘 해보라는 격려 뿐이었어요.
 직업탐방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직업들을 알았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반드시 제가 해야 하는 나
 를 미치게 만드는 무언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저는 조금씩 빠져 갔어요.

돌이켜 보면, 저는 총체적으로 제 삶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유도, 꿈도 제 삶의 일부이지만 저는 누리려고만 할 뿐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 꿈에서도 주변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TV를 보고 꿈꿨다가 TV를 보고 접었던 바텐더의 꿈처럼, 연극배우라는 꿈도 그렇게 시시하게 버리게
 됐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대부분 연극영화과 출신이더군요. 대학을 안 나와도 되는 거였지만, 제가 아는 배
 우들 중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또 연극배우들은 배가 고프다네요. 긴 무명생활을 컴퓨터로나마 읽고 있자니, 남 일이 아닌 것처럼 느
 껴졌어요.
 제가 어떤 길이란 찾아 들어서면 곧 근사해져야 할 텐데, 연극배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
 요.
 그리고 나니 그나마도 하고 싶었던 것들이 모두 소거되었어요.
 아무런 일을 갖지 않고도 삶을 지속해가는 NEET족들처럼, 저는 저의 삶을 유예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도전하여 쟁취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다는 것을 간디를 떠나기 전에
 는 깨닫지 못했어요.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쁜 우리 젊은 날’ 기획단으로 참여했던 일은 어찌 보면 제 운
 명을 바꾼 일이 될 지도 몰라요.
 제 꿈이 행사기획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저는 아직 제 꿈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용기가 생겼어요.
 직접 부딪쳐가며 성취했던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제게 책임감이라는 것을 가져다주었어요.
 언젠가 교장 선생님께서, 미칠 만큼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어렵듯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래 친구들이 엄마가 깨워주시는 소리에 아침을 시작하고, 아빠가 학교까지 내려다주고, 학원차가 집
 에까지 모셔다주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는 간디에서 17살이라는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껏 저는 간디에서 말하는 ‘독립’이나 ‘자주’ 라는 의미가 단순히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힘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진정한 ‘독립’, ‘자주’ 는 저로부터의 독립이고 자주여야 해요. 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해요. 단순히 혼자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견해 할 일이 아니었죠.

공부.
간디에 온 이후로 가장 사용횟수가 적어진 말이네요.
특히 교과공부라는 말은 거부감이 느껴지기까지 해요.
저는 이제 제 삶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려고요.
그 답은 책에 있을 수도, 컴퓨터 안에 있을 수도, 사람들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치열하게 살아야겠어요.
무언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비처럼 도전해야겠어요.
인터넷이나 기웃거리고, 전화나 한, 두통 해보고 결정되는 꿈이라면 그건 내 길이 아닐 거예요.

시저로서도 처음 들어보는 라라의 고백이었다.
시저는 더욱 단단해진 라라를 본다.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저가 간디로 흘러들어온 지도 7~8년이 지났다. 공교육이 더 이상 이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하고 대안교육으로 투신한 것이다. 처음엔, 자유교육이라는 기치가 자신의 교육적 신념을 더욱 다양하게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국어과를 맡은 교사로서, 대안학교 교사로서 겪는 매일매일은 언제나 고민과 회의의 연속이었다. 혹, 자유라는 달콤한 환상에 이끌려 교과공부는 거의 적대시하고, 수업을 제끼는 것을 영웅주의처럼 신봉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바치는 아이들을 지나오면서,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회의와 모순에 대한 자괴감으로 도망치다시피 작업장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교실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대안학교에서의 진로고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껴온 그다운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간디라는 선택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 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진로는 언제나 그 행복한 삶의 필요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탐방 등으로 대변되는 이벤트성 프로그램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책임지지 않았던 것은 라라가 아니라 시저 자신이 아니었을까.
다시 교실로 돌아가야 한다.

마주 앉은 두 사람 한켠으로 녹음이 짙어지고 있었다.

[끝]